

#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철학상담’ 전공으로의 초대

### 신학대학원 철학전공 ‘철학상담’ 세부전공 분야 소개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이자 신학대학원 철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박병준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철학상담 수련감독이자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최근 신학대학원 철학과에 신설된 철학상담 전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철학상담은 1980년대 초에 독일, 네덜란드, 북미를 중심으로 철학실천운동과 함께 시작된 신흥 학문으로서 철학을 통해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인간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철학상담치료협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각국에는 독립적인 철학상담치료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에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발족되었고, 국가민간자격증을 부여받아 학회를 중심으로 철학상담사(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 3급)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철학이 영혼의 질병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철학상담의 본질과 목표는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은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통찰을 통해 현대 정신분석 및 심리상담에 다양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날 철학상담은 기존의 강단철학의 이론철학을 탈피하고, 인간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철학함’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현대사회에서 철학상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고자 철학과 내에 전공 분야를 세분하여 기존의 일반철학 전공에 더해 새롭게 철학상담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신학대학원은 철학, 신학, 사회복지 등 삶에 주요한 다양한 학문 전공 분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문적 상승효과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과는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철학상담 전공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전문 철학상담사를 꿈꾸는 분이나 혹은 교육 기관, 병원, 사목 현장 등에서 다양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철학상담 전공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사유의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철학적 이해를 성장시켜 주며, 자율적인 자기 분석 능력을 계발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개인의 고유한 방식을 발달시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런 내적 존재 강화 훈련은 타인을 돕는데도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